

폭음문제를 가진 성인자녀(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Family Therapy for a Daughter with a Binge-Drinking Problem

임아리(A Ri Lim)¹, 박태영(Tai Young Park)^{2*}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lient's binge drinking, and the client and parents' change led by family therapy. From August to November 2011, the counseling case of this research was consisted of a total of 9 sessions-individual, parents, mother-daughter, father-daughter, and family counseling. This study utilized verbatim and audio recordings, and employed Miles and Huberman(1994) matrix and network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lient's binge drinking included the family'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adverse rearing attitude owing to unresolved emotional problems from the family-of-origin, and the client family's peculiar environment and culture. The therapist's intervention included making the client aware of his own problem,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arents' family-of-origin, connecting the past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identifying attempted solutions, making aware of new change, and suggesting new communication methods. Through the therapist's intervention employing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and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the family members experienced changes; perception of all family members that participated in the counseling changed, and accordingly, their communication method and attitude changed as well. Through these changes in the family, the client's alcohol consumption reduced in terms of both frequency and amount, thus was able to solve their binge drinking problem.

▲주제어(Key words) : 폭음(binge drinking), 가족치료(family therapy), 의사소통(communication), 원가족(family-of-origin)

I. 서론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여성음주자의 비율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폭음과 고위험음주율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연간 음주율은

1998년 기준 59.3%에서 2010년 83.8%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H. Park & J. Lee, 2011). 더불어 KCDH(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5.4%로 1995년 3.4%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월간 폭음을 추이 또한 1995년 17.2%에서 2013년 21.9%로 증가하였다.1)

알코올 중독 및 폭음과 같은 문제성 음주행동은 여성에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유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Tai Youn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Sang-do 1Dong, Dong Jak-Gu, Seoul, 156-743, Korea, tel: +82-820-0506, E-mail: tyyark@ssu.ac.kr

게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남성에 비해 높은 체지방율과 낮은 수분으로 인해 체내에서 알코올 희석되는 속도가 더디며(J. Ryu, K. Kang, & J. Lee, 2011)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알코올분해효소(ADH) 또한 남성보다 50% 정도 적게 분비되기 때문이다(H. Park & J. Lee, 2011).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성 음주 행동인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폭음 또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정을 자제하기가 어려워지며, 주의산만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망각, 충동 및 폭발적 행동을 하게 되어, 가족 및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H. Kim, 2012). 폭음의 경우 이러한 음주의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대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T. Park & W. Shin, 2011). 더욱이 폭음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없을 시 향후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법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의 폭음은 대인관계-특히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족관련 요인들로 인해 폭음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T. Park & J. Park, 2011).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족 기능과 가족 의사소통은 자녀의 폭음과 같은 문제성 음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F. Laghi, R. Baiocco, A. Lonigro, G. Capacchione, & E. Baumgartner, 2012),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와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의 음주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V. D. Ary, E. Tildesley, H. Hops, & J. Andrews, 1993; T. Dielman, 1994; G. F. Moore, H. Rothwell, & J. Segrott, 2010).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음주문제를 가족체계적 접근 및 가족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M. Keller, 1974). M. Edwards and P. Steinglass(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치료가 알코올 중독에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연구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가족치료의 개입이 알코올 중독과 폭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T. J. O'Farrell & W. Fals-Stewart 2003; T. J. O'Farrell & K. Clements, 2012). 특히 가족치료적 접근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 J. Rotunda & T. J. O'Farrell, 1997).

하지만, 현재 우리 학계의 문제성 음주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국한된 연구들만이 주를 이루어졌으며, 음주문제의 원인을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적절한 개입방안을 제시한 연구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문제성 음주행동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극히 드문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폭음문제를 가진 딸에 대한 가족치료 개입을 바탕으로 폭음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폭음에 영향을 미친 가족요인과 가족치료 개입 이후 나타난 성인자녀(딸)와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여 딸의 폭음문제 해결 요인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폭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가족 체계적 접근

폭음을 비롯한 문제성 음주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 전체가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K. Jeon & H. Lee, 2010), 그에 따라 스트레스는 음주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M. Mulia, L. Schmidt, J. Bond, L. Jabocs, & R. Korchal, 2008). 특히 개인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폭음을 비롯한 음주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 Yang & Y. Song, 2013), 정서적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울과 불안은 폭음과 같은 음주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Han, M. Lee, & H. Shin, 2005). 개인의 우울은 음주에 있어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우울과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내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감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음주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S. A. Brown, M. Goldman, A. Inn, & L. Anderson, 1980; W. Jeong, 2006; G. M. Kushner, J. K. Sher, & D. J. Erickson, 1999; B. A. Lewis & K. H. O'neil, 2000; T. Park & W. Shin, 2011). 즉, 우울과 역기능적 태도의 상관관계가 알코올 중독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T. J. O'Farrell & W. Fals-Stewart, 2003). 이러한 우울과 음주의 상관관계는 남성음주자에 비해 여성음주자의 경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R. I. Lipton (1994)에 따르면, 여성의 문제성 음주행동이 발생하는 여러 복합 요인 중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이나 슬픔, 우울과 같은 감정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음주를 하게 되며, 남몰

1) 고위험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만 19세 이상

래 혼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선행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음주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주로 혼자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 Kim, 1996; J. Lee & S. Kim, 2000; H. Park & J. Lee, 2011).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는 여성 음주의 특성상 그 심각성이나 중독성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J. Lee & S. Kim, 2000). S. Lim, H. Cho and Y. Lee(2005)의 연구와 Y. Shin and Y. Kim(200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정서,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처로 음주를 시작하고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알코올 중독은 남성과 달리 환경적 측면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의 음주는 남성의 음주패턴과 다르게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성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Kim, Y. Choi, and J. Choi(2003)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음주를 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문제성 음주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직업이 높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문제성 음주행동은 가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 Park & J. Lee, 2011). 특히 여성은 배우자나 남자친구를 통해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J. Copeland & W. Hall, 1992). 이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음주는 환경적으로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람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음주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지망, 즉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Y. Shin & Y. Kim, 2009). J. E. Turnbull(1994)은 여성 알코올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갈등을 꼽았으며, S. C. Wilsnack(1982)은 음주를 촉진시키는 배경으로 배우자나 부모의 죽음, 자녀 가출 등 가족 관련 사건들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M. K. Skaff, J. W. Finney, and R. H. Moos(1999)와 S. Jung(2007)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폭음문제는 남성과 달리 가족관계의 문제 및 지인의 사망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폭음과 같은 음주문제를 다룸에 있어 폭음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는 접근법과 함께, 문제성 음주행동에 대한 가족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T. Park

& J. Park, 2011; T. Park & W. Shin, 2011). 음주와 가족의 상관성을 살펴본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알코올 사용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갈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 J. Mathijssen et al., 2014). G. M. Barnes, J. H. Hoffman, J. W. Welte, M. P. Farrell, and B. A. Dintcheff(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음주행동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 D. Scheer, L. M. Borden and J. F. Donnermeyer(2000)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갈등은 자녀들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알코올과 같은 물질 남용 조절의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및 가족기능은 자녀들의 음주행동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G. M. Barnes, A. S. Reifman, M. P. Farrell, and B. A. Dintcheff, 2000; G. M. Barne et al., 2006; S. D. Scheer et al., 2000;). 더불어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문제성 음주행동을 나타내는 자녀들의 주요 음주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J. K. Tak, 2000; T. Park & W. Shin, 2011). 특히 자녀들의 알코올 사용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족과의 갈등은 아들보다는 딸의 음주행동에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Kelly et al., 2011).

다음으로 가족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살펴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가족의 지지적 의사소통과 감정교류는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코올 사용의 성공적인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M. C. Beattie & R. Longabaugh, 1997; E. C. Duttona, T. Adams, S. Bujarski, L. C. Badour, & T. M. Feldnera, 2014; A. J. Gordon & M. Zrull, 1991; J. A. Tucker, R. E. Vuchichich, & M. M. Pukish, 1995;). 특히 음주문제를 가진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Sheridan & R. Green(1993). 즉, 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음주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다(D. M. Ackard, D. Neumak-Sztainer, M. Story, & C. Perry, 2006; P. Noller & V. Callan, 1990).

여성의 음주는 그 동기과 패턴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이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문제성 음주행동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찰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개입방법이 자녀의 음주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임을 기대할 수 있다.

2. 치료적 준거틀

1) Bowen의 가족체계이론

Bowen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감정 체계(feeling system), 정서적 체계(emotional system) 그리고 지적 체계(intellectual system)로 구성된 세 개의 체계를 갖는다(C. G. Aaron, 2005).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은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이다. Bowen은 자아분화를 한 개인이 감정 시스템의 혼란 속에서 동시에 객관적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 Bartle-Haring & A. Lal, 2010; M. Bowen, 1978). 다시 말해, 자아분화는 두 가지 요인들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a) 인지적 기능에서의 감정과 사고의 균형, (b) 관계에서의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라고 규정하였다(S. Bartle-Haring & A. Lal, 2010; M. Bowen, 1978). 그러므로 자아분화는 높은 수준의 융합(fusion)을 중시여기는 중요한 관계에서도 한 개인이 자율적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S. Bartle-Haring & A. Lal, 2010). Bowen은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융합(fusion)이라고 표현하였다. Bowen의 이론의 또 다른 개념은 한 가족은 그 가족의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킨다는 것이다(M. E. Kerr & M. Bowen, 1988). Bowen은 개인주의적 접근과 다르게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였고, 한 개인을 전체 가족체계의 한 부분 요소로 보았으며 가족을 하나의 정서체계로 묶어 이해하였다(Y. Kim, 2002; T. Park & J. Yu, 2012). 특히, 가족의 분화수준은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에서 잘 이루어진 분화경험을 가진 개인은 새로운 가족체계에서 또한 감정적으로 밀착되거나 융해되지 않는다(T. Park & J. Yu, 2012). 그러나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융합하는 것으로 감정체계를 이루고자 한다. Bowen은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이 이성적 생각과 감정을 가족체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C. G. Aaron, 2005). 미분화된 가족을 경험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룬 후에도 감정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며, 삼각관계를 만들어 불안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삼각관계를 Bowen은 가장 불완전한 관계체계로 보았다. 삼각관계를 통해 개인은 일시적인 불안 감소 및 스트레스 감소를 경험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족 정서체계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켜 증상이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I. Goldenberg & H. Goldenberg, 2013).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은 원가족으로부터

의 자아분화와 다세대전수 과정에 초점을 두는 모델로서(T. Park, 2001), 본 연구의 분석 사례에 적합한 가족치료 모델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내담자 어머니의 원가족 내 미해결 된 모녀관계(내담자의 외할머니-내담자의 어머니)가 현재 핵가족 내의 모녀관계(내담자 어머니-내담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모녀관계의 문제가 내담자의 폭음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원가족을 통찰하여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Bowen의 가족치료 모델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폭음을 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아닌, 가족체계적 상호작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MRI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

MRI(Mental Research Institute) 모델은 의사소통과 체계 개념에 기반을 두고, 내담자의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 접근법이다(T. Park, 2009). 다시 말해, 가족 체계 내에서 관찰되는 현재의 상호작용(관계)에 관심을 두고(T. Park, 2001), 가족 내의 명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치료의 목적을 둔다.

MRI 집단에서는 가족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방식에 의해 오히려 문제가 유지된다고 본다. MRI 관점에 의하면, 문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해 발달된 것으로 문제를 잘못 다루는 것과 문제 해결 시도의 실패와 동일한 문제해결 방식의 적용이다(P. Watzlawick, J. H. Weakland, & R. Fisch, 1974). 즉,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 온 방식들로 인해 유지되거나, 또는 악화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MRI 모델을 적용하는 치료자는 내담자가 고수해오던 기존의 해결책을 대체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차적 의무를 갖는다(J. H. Weakland, 1993).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음주 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A. R. Anderson & C. S. Henry, 1994; R. Jessor, M. S. Turbin, & F. M. Costa, 1998). 특히 자녀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가족갈등이 음주문제와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Kelly et al., 2011). 따라서 가족 체계 내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본 치료 모델은 내담자(성인 여성)와 내담자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그동안 유지되어 온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기능적으로 변화시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폭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내담자가 폭음을 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들이 시도해온 기존의 해결책을 파악하고 치료자가 효과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본 이론은 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는 MRI 모델을 치료적 준거틀로 활용해 내담자(딸)가 폭음을 반복하는 문제요인을 탐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담자 가족들이 지속해왔던 기존의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의 기능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먼저, 내담자(딸)의 폭음정도는 알코올 중독 수준에 미치지 않았으며, 내담자 가족은 딸의 폭음이 가족 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담자가 직접 가족치료를 의뢰한 사례이다. 본 사례는 아버지(58), 어머니(56), 딸(30), 아들(26)로 구성된 4인 가족으로 딸의 폭음 문제로 내담하게 되었고, 상담 진행에 있어 남동생은 학업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상담은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9회기가 진행되었고, 모든 상담회기는 60분 이상 진행되었다. 또한 딸(1, 2회기), 어머니(3, 4회기) 아버지(5, 6회기)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이 진행되었고 모녀상담(7회기), 부녀상담(8회기), 가족상담(9회기)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내담자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자원들은 내담자 가족의 가족치료가 효과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가정과 직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족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내담자(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를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신혼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깊이 사랑

하고 있었고,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 자원은 가족치료를 통해 남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자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치료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딸에 대한 자신의 비효과적인 양육태도를 인지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긍정적 자원이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부모가 변화되었다고 느끼고 자신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연구질문

연구질문 1. 딸의 폭음에 영향을 미친 가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 가족의 변화를 위한 치료자의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3. 가족치료의 개입 이후 나타난 성인자녀(딸)와 가족의 변화는 무엇인가?

3. 분석방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내담자(딸)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Creswell (2012)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하나 또는 다중 사례의 현상을 탐험하는 방법론이다. 또한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하나 또는 다중사례의 경계선 안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치료자가 가족치료 과정에서 적용한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 가족체계에서 나타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과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 문제를 분석하고 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도출된 개념들의 범주화를 통해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상위 범주를 발견하였고, 발견된 개념들은 M. B. Miles and A. M. Huberman(1994)이 제시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하여 개념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Client's Family

Family members	Characteristics
Father(58)	Infidelity, Family of origin's sunshine son, Excessive nagging, Never complimented the children, Ignored wife, Diligent, Brusqueness, Social success, Having high earning power
Mother(56)	Grew up being discriminated against(education deprivation), Unresolved hatred and fury toward her mother, Deep love to husband, Discriminated between son and daughter, Having high earning power, Gap of social status between husband and wife, Cheerful personality
Daughter (Client,30)	Binge drinking, Lack of confidence, Could not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Experience of date violence in 20's, Brusqueness, Having stress from mother afraid of father, Having high earning power

다. 네트워크 방법은 통합적 접근에 적합하며, 여러 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보여주어, 사례연구에 적절하다. 또한 매트릭스는 다양한 변인들의 교차 및 상호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인을 도출하는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M. B. Miles & A. M. Huberman, 1994).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고, 상담의 효과성과 진행과정에서의 변화를 도출해내기 위해 상담 축어록 9회기 분과 음성녹취 자료, 그리고 치료자의 상담일지를 함께 활용해 자료의 삼각화를 꾀하였고, 상담 시에 진술된 내용들은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도 치료자와 연구자 및 동료연구자들이 토론을 통해 연구자의 삼각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치료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년 동안 가족치료 임상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이며, 삼각화에 참여한 동료연구자들은 모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가족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로서 질적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담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내담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례에 대한 개요

내담자는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의 술자리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때론 혼자 자기 방에서 가족 모

르게 폭음을 하고 쓰러지는 형태가 반복되었다. 내담자는 특히 어머니가 답답하였고 남동생과의 차별대우로 인해 내담자는 가정에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을 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침상을 뒤집어엎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버지의 폭력성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폭력적 체벌로 인해 부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분노를 내담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내담자의 부모는 모두 술을 좋아하며 내담자의 가족은 함께 술을 마실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줄곧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고 자신감이 부족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스트레스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내담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벽이 있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남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는 폭음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2. 내담자(딸)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 요인

내담자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원가족과의 미분화된 정서문제로 인한 비효과적인 양육태도, 그리고 특수한 가정환경과 가족문화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Bowen의 가족체계 이론과 MRI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 내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개념들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내담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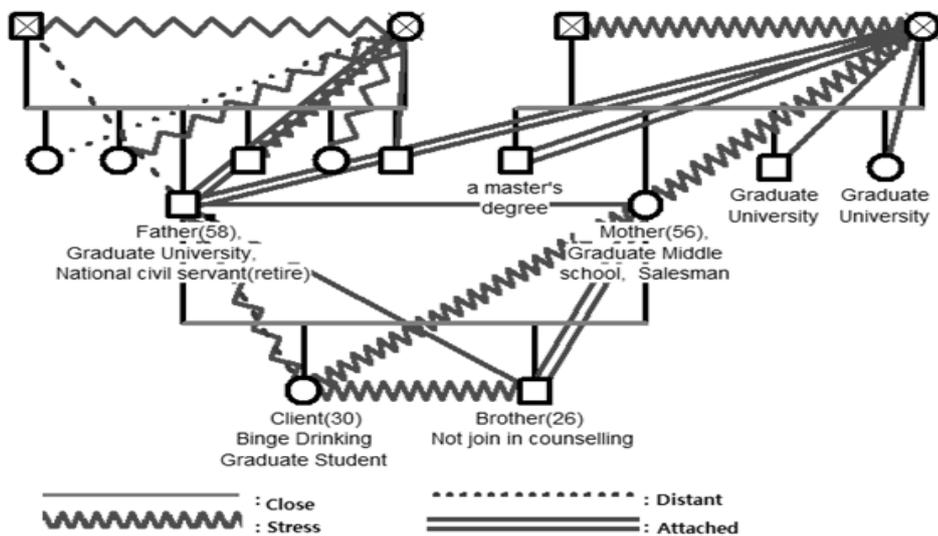


Figure 1. Genogram

Table 2. Factors that Influences the Client's Binge Drinking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oncept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famil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parents (husband-wife)	Strong vs. Strong language provoking a fight	Straightforward language, used strong language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honeymoon.
		Wife being ignored (by husband)	Scornful language ignoring the wife's intelligence level, the husband urging the wife to stud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parent-child	Disapproving and disdainful language toward children	Gave up on the children, both parents never complimented the children
		Excessive nagging	Sickening nagging, the whole family nagged to an excessive degree.
Ineffective rearing attitude owing to emotional problems from the family-of-origin	Undifferentiated emotions from the family-of-origin	Child who could not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Parents' indifference to the daughter's feelings since her childhood, the daughter who drinks alone and keeps her feelings inside
		Mother who grew up being discriminated against, father who grew up being treated well	The mother (middle school graduate) who was the only child to not receive higher education among four children in her family, and the father as the first of six children in his family was fully supported by his family
	Poor rearing attitude	Mother who could not solve the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Unresolved hatred and fury toward her mother (passed away)
		Rearing attitude: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Parents' discrimination on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son and the daughter and imposing domestic responsibilities only on the daughter (the son did nothing at home)
Peculiar environment and culture of the client family	Client victimized by the father's infidelity	Daughter who had become a punching bag of her mother	The mother who took out her stress and anxiety due to the father's infidelity on the daughter
		Neglected daughter	The mother could not take care of children because of the father's infidelity, the daughter who had to take care of everything by herself "continued"
	Family culture familiar with alcohol	Alcohol = communication buffer	Did not usually talk, but could have conversation while drinking, only talked with friends after a couple of drinks
		Drinking culture	Both paternal and maternal grandmothers were fond of drinking, family members liked drinking and were permissive toward it

족의 특수한 가족환경과 가족문화 요인은 내담자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요인과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을 근거로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담자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음주문화가 내담자의 음주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개념으로 도출하였다.

1)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과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포함되었다. 먼저, 부부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신혼초기부터 서로 지지 않으려는 '강(強) vs 강(強) 말투'로 인한 다툼이 잦았다. 그 사이에서 내담자는 극심한 공포와 아버지의 폭력적 분노표현을 수차례 목격하였으며,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남편)의 경우 어머니(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사용하였

으며, 아버지의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담자(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 모두 지나친 잔소리- '돌아버리게 만드는 잔소리'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도록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였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속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지 못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음을 하며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① 싸움을 일으키는 강(強) vs 강(強) 말투

"<딸> (부모가 관계가)안 좋으셨죠. 계속 부딪치셨죠. 진짜 싸우신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워낙 말투가 두

분 다 강하시니까 (중략)"(1회기, 딸 상담)

"<어머니> 그러니까(부부가 충돌할 때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 직구를 던지니까 그렇지,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싶은 말 바로 짝 해버린다거나, (중략)"(4회기, 어머니 상담)

② 무시당하는 아내(어머니)

"<어머니> 남편하고 특히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사 이런 거 이쪽으로 남편 아무래도 박식하잖아요. (남편이) 진짜 한국사 같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때도 많이 아, 내가 역시나 무식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무시할 때도 있었죠.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4회기, 어머니 상담)

"<아버지> 제가 (아내를) 좀 무시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좀 해라. (5회기, 아버지 상담)

(2)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①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투

"<내담자> (소개팅 상대 남성에게 대한 어머니의 반응)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뭐 월급은 과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서 너가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제일 충격 받은 게 그거였어요. (1회기, 딸 상담)

"<내담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저 되게 좋아하셨고, 또 이미지가 모범생 이미지니까 좋아하셨는데, 집에 오면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항상."(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② 돌아버리게 만드는 지나친 잔소리

"<내담자> 네. 대박 잔소리에요. 시끄러울 정도로. (중략) 우리 집이 다 그래요. 잔소리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동생도 보면 그렇고."(1회기, 딸 상담)

"<내담자> 저는 진짜 잔소리 안 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싫어서. 너무 질려서.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질렸고, 엄마한테도 질리고, 동생한테도 질려서"(2회기, 딸 상담)

③ 가슴 속 이야기 터놓지 못하는 자녀

"<내담자> 다른 가족 같았으면 혹시 무슨 일 있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머니> 응, 그러니까 챙길 줄을 몰라. <내담자> 아, 그런가보다. 앤 왜 또 이렇게 화가 나왔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뭘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봐줘

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근데 그럴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내담자> 옛날 같으면 저도 짜증 팍 났죠. 요즘은 안내잖아. 대신에 술을 마시죠. 저 혼자 그냥 묻고 가는 거죠."(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2) 원가족과의 미분화된 정서문제로 인한 잘못된 양육 태도

본 사례에서 내담자의 부모는 모두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내담자의 어머니의 경우, 어릴 적부터 친정어머니로 인해 늘 가족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고 다른 형제들과 심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로 인해 4남매 중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들만 챙기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딸보다 아들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는 가사와 관련하여, 현재 무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은 자신이 먹은 그릇 하나 씻지 못하게 하였으나 대학원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내담자에게만 가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내담자를 비난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사망한 친정어머니에게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늘 자신을 가족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친정어머니로 인해 모녀관계의 애뜻함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 어머니는 딸과 친밀한 모녀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내담자의 아버지는 이와 반대로 원가족에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6남매 중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였다. 아버지의 원가족 또한 여자 형제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남존여비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서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로부터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아들인 동생과의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1)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정서

① 친정어머니에게 차별받고 자란 모(母), 대우받고 자란 부(父)

"<내담자> 외가를 보면, 이모 세분은 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만 또 집안일 하시느라 고등학교 졸업 못하시고서. (2회기, 딸 상담)

"<내담자> 근데 우선은 친가는 아버지 중심. 아버지가 잘 나셨으니까. 다른 식구들은 일을 할 때 아빠 혼자서

공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모들도 우리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2회기, 딸)

“<어머니> 그래서 오빠가 또 대학 가게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또 못 보낸다 그래 가지고 제가 희생(중학교만 졸업하게) 된 거죠.”(3회기, 어머니 상담)

② 친정어머니와 관계를 풀지 못한 모(母)

“<어머니> 저는 아직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진짜 엄마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가면 울고 오고 그러는데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고 있네요.”(3회기, 어머니 상담)

“<아버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장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죠.”(5회기, 아버지 상담)

③ 잘못된 양육태도

가. 남존여비 사상의 양육태도

“<내담자> 그냥 여태까지 그랬던 마음들이 한 번에 다 확 터진 듯한 느낌? 그냥 이번에 등록금도 원래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셔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아빠의 쪼잔함?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동생(아들)한테는 지금 공무원 준비한다고 학원, 인터넷 강의 듣는 거, 대주시고 하는데 나 대학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빌려준다는 것조차 그렇게 힘드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7회기, 딸 상담)

“<내담자> 그러니까 동생(아들)은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보면 개는 공부한다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무 것도 안 시켜요.”(8회기, 딸 상담)

3) 내담자 가족의 특수한 환경 및 문화

내담자의 아버지는 약 8년 간 한 여성과 외도관계를 지속해왔고,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내담자 아버지의 오랜 외도로 인해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하소연을 내담자에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녀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감정을 혼자 삭이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지속하게 되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은 친가와 외가 모두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친조부와 외조부는 술을 잘 못하지만, 친조모와 외조모는 음주와 흡연을 모두 즐겼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은 평소에는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술을 마시면 서로에게 이야기를 터놓는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내담자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며,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내담자는 술을 대화의 윤활유로 사용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폭음을 하였다.

(1) 아버지의 외도로 희생양이 된 내담자

① 엄마의 신문고가 되어버린 딸

“<어머니>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일이 있고나서부터, 중 2 그 때부터 거 같아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딸한테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딸은 그걸 다 듣고 엄마가 얘기할 때가 없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3회기, 어머니 상담)

“<아버지> 좀 불안했겠죠. 근데 자녀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당시에 애들은 약간 엄마 편을 들면서, 서로 엄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6회기, 아버지 상담)

② 방치된 딸

“<내담자> 네 그 때 엄마는 또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치료자>엄마는 아빠문제가 터져버리면 온통 신경이 거기로 다 가고 우울증까지 오실 수 있지요. <내담자> 네. 어릴 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얘기를 쉽게 터놓지 않고 그냥 혼자 해결해버리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한테도 잘 얘기 안했었어요. 옛날에.”(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2) 술과 친숙한 가족문화

① 술 = 대화의 윤활유

“<치료자> 양쪽이 다 문화가 술문화군요. <내담자>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술을 마셔야. <치료자> 얘기가 되요? <내담자> 네. 저도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평소에 말을 잘 안하다가 술을 마셔야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 술을 마시는 거예요.”(1회기, 딸 상담)

“<아버지> 우리가(가족)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죠.”(5회기, 아버지 상담)

② 술문화

“<내담자> 외할머니도 (술) 잘 드세요. 같이 많이 마셨어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술도 담그시고.”(1회기, 딸 상담)

“<어머니> 아빠(남편)와 저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집안이 술문화가 되어 있어요.”(3회기, 어머니 상담)

3. 가족의 변화를 위한 치료자의 개입방법

치료자가 활용한 개입방법으로는 내담자의 문제 인식시키기, 원가족 문제에 대한 통찰하기, 원가족문제와 현재를 연결시키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방식에 대해 질문하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및 변화 인식시키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입방법으로 인하여 내담자 가족은 내담자 폭음문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변화가 일어났다.

1) 내담자의 문제인식 시키기

치료자는 내담자와 부모에게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담자의 폭음 문제는 가족 내 스트레스 및 해결되지 감정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즉, 내담자의 폭음문제는 가족 내 숨겨진 문제들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가족구성원들의 숨겨진 문제들을 밝혀내고 인식하도록 하는 개입기법을 활용하였다.

“<치료자> 그렇지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와 같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녀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내려가지 않았

느냐 이거예요? <어머니>애들한테 진짜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딸아이가 도피처가 없었겠지요. <치료자>그럼 따님이 그 불안한 엄마아빠 사이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을 틈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맞아요. 희생양이었죠.”(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근데 저는 따님이 사실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감이 결여 돼있고, 또 하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로 이성 친구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음주로 간다라는 거예요.”(8회기, 딸과 아버지 상담)

“<치료자>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데, 따님이 의외로 아빠한테 대화를 좀 삼간다고 할까요?”(8회기, 딸과 아버지 상담)

2) 원가족 문제에 대한 통찰 및 이해시키기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개입기법은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원가족 문화 및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치료자가 서로 다른 원가족 문화와 경험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입기법은 내담자와 내담자 가족은 그동안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해오던 상대방의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Table 3. The Therapist's Intervention Method for Client's with a Binge Drinking problem and Her Family

Intervention method	Contents
Problem assessment	make parents to recognize client got stress from them, find out the reason of client's binge drinking, helped recognize unrecognized problems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helped the wife and the husband understand their own and spouse's family-of-origin, and the daughter understand her parents' family-of-origin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Explained that the mother's unresolved emotions and problems from her family-of-origin was identically shown in her relationship with daughter and that the rearing attitude -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 was transferred from the parents' family-of-origin.
Identifying previously attempted solutions	Asked questions on attempted solutions to solve the daughter's binge drinking problem, and helped the client family members understand the adverse effect of their previously attempted solutions by asking them for specific instances.
Making aware of new changes	Asked each family member about new changes since family therapy intervention; helped the client family members discover changes unrecognized by asking them for detailed answer. Continuously asked questions about new changes in family counseling sessions (session 7,8&9) so that changes felt by the client could also be recognized by other family members
Attempting new communication method	Suggested new communication method different from the previous family communication method, attempting communication method with which the daughter talked to her mother about her current stress, collaborated with the client to find a communication method with which the daughter could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in order to solve the cause of her binge drinking, suggested a new communication method where the father sided with the daughter when she spoke her mind.

“<치료자> 어머니하고 아버지 집안 상황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오히려 집안에서 아버님이 가장 고학력하시고 직업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가장 상층하신 분이고, 어머니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쪽 집은 다른 형제들은 다 대학을 나왔고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가정적으로 볼 때 어머니, 아버님의 위치가 반대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따님하고 걸려있는 이면에는 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하고 관계가 크게 걸려있었다는 거거든요.”(5회기, 아버지 상담)

“<치료자> 지금 엄마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할머니가 불같이시고 악바리 근성이 있고 과도한 역할을 하는 여장부 스타일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또한 불같은 말이지요. 그럼 엄마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외할머니한테 속삭인 마음을 내놓고 얘기를 주거나 받거나 해보셨겠냐고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3) 과거(원가족)와 현재의 연결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들로 하여금 원가족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 및 스트레스 상황이 과거 원가족에서도 지속되어 왔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치료자는 과거(원가족)와 현재의 연결시키기 기법을 활용해, 가족 내 문제 발생 시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비난하는 방식을 자신의 원가족과 연결하여 인식하게 되면서, 현재의 가족 문제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원가족에서 걸려 있는 관계가 다시 걸리고 있다는 점을 가족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켰다.

“<치료자> 저는 지금 들으면서, 따님이 꼭 어머니가 자라오셨을 때 오빠 때문에 체인 것처럼 딸도 지금 동생 때문에 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머니>네네. <치료자>맞지 않나요? <어머니>네. 네네.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맞아.”(3회기,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근데 지금 제가 느낌이 뭐냐면, 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관계하고,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관계가 지금 삼대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모습인 거고. 따님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게 동생과 차별대우 받았다는거고 어머니 또한 오빠하고 차별대우 받았다는 거죠.”(3회기, 어머니 상담)

4) 기존의 시도된 해결책 확인하기

치료자는 본 가족치료에서 활용된 MRI 의사소통 모델의 ‘가족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해온 해결책에 의해 오히려 문제가 유지 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 가족이 내담자의 폭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해 온 해결책을 확인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내담자와 부모에게 지금까지 시도해온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여, 그동안 시도해온 해결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어머니> 그러면 지(딸)는 벌써 내가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겨서 더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치료자>더 먹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일단 따님한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따님이 정리정돈이 안 되거나 술을 먹고 또 자기 방 가서 또 술을 먹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어머니> 막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들어내는 거죠. <치료자>그러니까 따님한테 어떻게 표현하시는데요? <어머니>왜 술 먹고 그렇게 사냐고. 몸도 더 비만해질텐데 그러고 있냐고. (3회기, 어머니 상담)

5) 새로운 변화 인식 시키기

치료자는 가족치료가 후반부로 진행되며, 그동안의 진행되어온 상담을 통해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확인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에게 변화된 점을 질문하여 내담자와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 개입 기법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주었다.

“<치료자> 어머니께서 혹시 따님하고 최근에 어떤 변화나 차이점이 있으실까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그럼 상담하기 전과 어머니께서 따님 입장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표현방식에서 차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대화가 딱 끊기고. 이런 것들이.”(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따님도 어떻게 엄마의 변화를 느끼실까요? <딸>네. 상담 갔다 오시고 나서 내가 외할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 이러시면서 저한테도 그럴 수 있었겠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듯이, 저랑 엄마랑 사이도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6)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시도

치료자는 MRI의사소통 모델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

하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의사소통 방식이 효과 없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임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연습시켰다. 그리고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향후 가족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효과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언하였다.

“<어머니> 스트레스에 대해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좀 받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지가 어떤, 어떠한 일이 있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 이것도 안 해요. 진짜. <치료자>자, 오늘 한 번 말씀해봅시다. 엄마가 일단 이해를 하시도록. 엄마 보시고” (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그럼 엄마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내 속에 있는 걸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그러니까 아버님 따님이 엄마한테 억울한 거 동생한테 억울했을 때 아버님이 객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따님의 감정이 나오게끔만 해주시라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8회기, 딸과 아버지상담)

4. 가족치료로 인한 성인자녀(딸) 및 가족의 변화

본 사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딸의 변화를 통해 치료자의 개입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치료자의 개입 효과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원들(아버지, 어머니, 딸) 모두 인식, 의사소통, 행동 영역에 있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모두 공통적으로 치료자의 개입을 통해 서로의 원가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원가족과 현재를 연결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변화된 인식 구조를 통해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짜증과 비난 섞인 메시지를 전달하던 의사소통 방식은 감소하였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사소통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내담자의 경우는 가족구성원들의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가족치료 개입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폭음을 하던 음주습관이 사라졌다. 또한 내담자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대화를 통해 터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치료 개입의 효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1) 아버지의 변화

(1) 아버지의 인식변화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도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잊어버렸던 옛날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제 내면에 있는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6회기, 아버지 상담)

(2)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 변화

“<내담자>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한번은

Table 4. Effectiveness of Therapist’s Intervention in the Client with Binge Drinking and Her Family

Category 1	Category 2	Concept
Change in the father	Cognitive change	Understood the family-of-origin and connected it with the present, and more deeply understood his wife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Was able to maintain an amiable tone of voice while having conversation with his child, made more jokes, and had more conversation with his family.
	Behavioral change	Shared house chores on day-offs or holidays, made an effort to have family gatherings (eating out) more often.
Change in the mother	Cognitive change	Tried to put herself in the other’s situation, acknowledged her children’s autonomy, deep insight on the family-of-origin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Spoke for the daughter, became less peevish when talking, frankly talked about her feelings.
	Behavioral change	Spent more time with her husband, and became kind to the family members.
Change in the daughter	Cognitive change	Understood her parents’ family-of-origin, became considerate for and empathetic to her mother, became emotionally comfortable in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became vivacious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Made an apology first when having conflicts with her parents, could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understood and spoke for her mother
	Behavioral change	Neatly organized her room, did house chores on her own, and drank alcohol remarkably less both in terms of frequency and amount (binge drinking solved)**

아빠 혼자 술 드시면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술 혼자 드시면서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술 취한 상태시니까 기분이 좋으셨겠지만, “어, 밥은 먹었어?” 이러면서 막 되게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시는데 되게 좋더라고요.”(9회기, 가족 상담)

“<어머니> (상담 하면서) 또 조금씩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같아요. 와이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고. 빨래도 같이 널다보면 뭐 농담도 하고 뭐 뒤집어 준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인데 왜 당신이 뒤집냐 그러고 또 웃고 그러다보니까 생활이 서로 유머를 통해서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9회기, 가족 상담)

(3) 아버지의 행동변화

“<내담자> 근데 요즘은 아빠가 또 쉬시는 날 해주시니까 이게 부딪치는 일이 크게 없어요. <치료자> 아빠가 가사분담을 해주세요? <어머니> 많이 분담 해줘요.”(9회기, 가족 상담)

“<아버지> 그래서 가끔 가족들끼리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대화를 자주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9회기, 가족 상담)

2) 어머니의 변화

(1) 어머니의 인식변화

“<내담자> 네. 엄마가 상담 갔다 오시고 난 이후 딱 첫머리가 ‘아, 내가 외할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 이러시면서 저한테도 그럴 수 있었겠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듯이’, 저랑 엄마랑 사이도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어머니> 그리고 될 수 있는 데로 애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지금은. 딸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켜보고 있어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어머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서로 더 보게 되고 내가 옛날에 몰랐던 걸 그걸 집어내 주시니까 내가 딸한테 그걸 못 겪어서 딸한테 그걸 못했구나.”(9회기, 가족 상담)

(2)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 변화

“<내담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진짜 엄마가 화가 나서 저한테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짜증을 내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원하시는 말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어머니> 그래서 어젠 저도 운동하고 나서 맥주를 찾았는데 (딸이) 먹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너 술

먹어?” 이럴 텐데 “그냥 00야, 한잔 쥘. 남았어?”(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3) 어머니의 행동 변화

“<어머니> 이 상담으로 인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배려, 더 이쪽 편에 서서 제가 얘기, 행동하게 되고. 딸도 좀 엄마를 감싸면서 얘기 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내담자> 엄마는 가끔씩 이제 예전처럼 짜증내시고 하실 때도 있는데 요즘은 확실히 조금 덜하신 것 같아요.”(9회기, 가족 상담)

3) 내담자의 변화

(1) 내담자의 인식변화

“<아버지> 그래서 딸도 그걸 스스로 느꼈던 모양이에요. 딸이 교수님하고 몇 번, 집사람도 상담 두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딸도 예전보다 조금 많이 성격이 쾌활해졌고 대화도 좀 잘하는 거 같아요.”(5회기, 아버지 상담)

“<내담자> 제가 솔직히 이 상담을 의뢰한 거는 저 때문에 바뀌길 원해서 의뢰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상담의 목적이란 건 그런 거니까. 저도 변할 게 있으면 변하고 엄마아빠도 변할게 있으면 변하고. 저는 엄마아빠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솔직히 목적이잖아요. 원가족을 알고 나서 솔직히 엄마랑도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9회기, 가족 상담)

(2) 딸의 의사소통방식 변화

“<어머니> 한번 또 부딪쳤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정리 다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옛날에는 딸이 고집이 굉장히 션었는데, 그걸 굽히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문자 보내고 또 아빠한테도 보내고 이러니까. 아빠도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내담자> 동생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치우면 좋을 거를. 그냥 빈정빈정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일하시니까 그렇지’ 이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9회기, 가족 상담)

(3) 내담자의 행동변화

“<어머니> 딸은 그러니까 방부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방 정리정돈이 좀 되고, 정리대를 사가지고 몇 일전에 싹 정리를 했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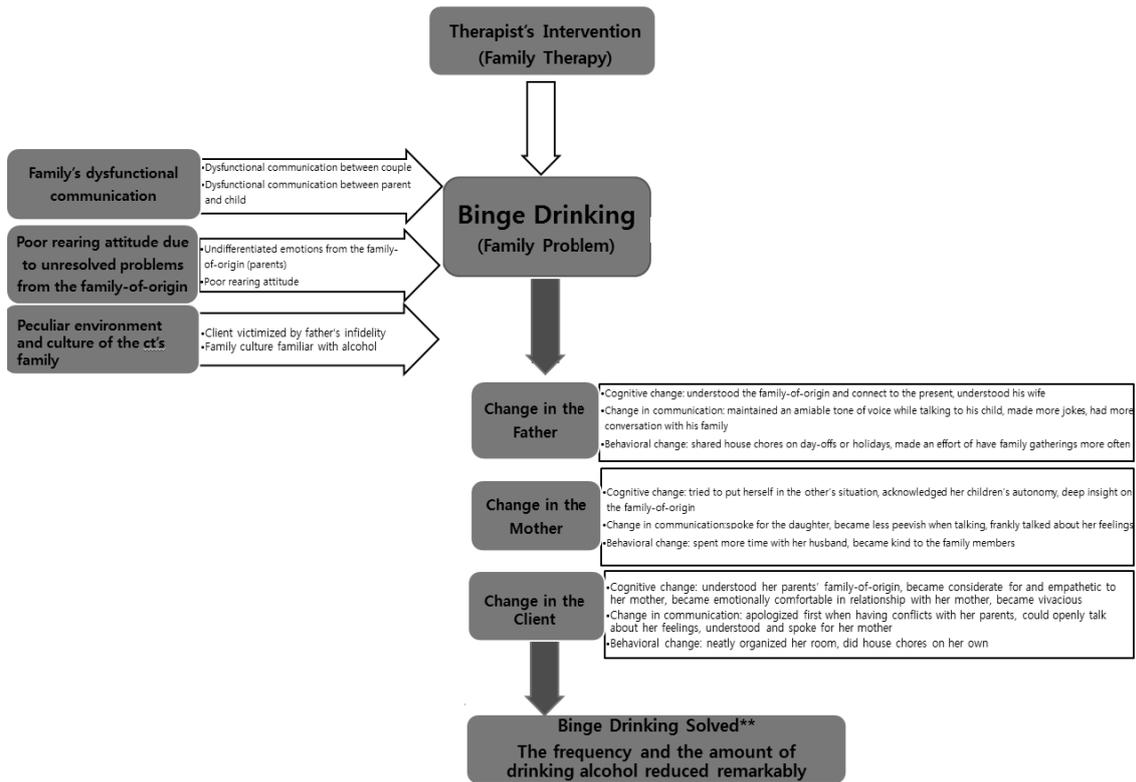


Figure 2. Network of Overall Analysis

Table 5. Family Therapy Theory and Interven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ounseling Sessions

session	Family therapy theory	intervention method
1	Bowen family systems theory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2		
3	Bowen family systems theory ,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Identifying previous attempted solutions
4	Bowen family systems theory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5	Bowen family systems theory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6	Bowen family systems theory,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Identifying previous attempted solutions
7	Bowen family systems theory,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Problem assessment, Making aware of new changes, Attempting new communication method
8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Problem assessment, Attempting new communication method
9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Making aware of new changes

“<어머니> 딸이요? 뭐 하라하라 하는 것보다 어제처럼 자기가 알아서 치워주고 이런 거 고맙죠.”(9회기, 가족 상담)

“<치료자> 그러면 술은? <내담자>술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아버지> 요즘은 자제하고 있더라고요. <내담자> 아니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안나요. 기분이 이렇게 평온하니까 그냥 일 끝나고서 뭐 그 다음 날 쉬는 날일 때 ‘아, 한잔하고 싶다.’ 그럴 때나 마시지 네, 뭐 무슨 기

분 안 좋아서 그런 건 없어요. (9회기, 가족 상담)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내담자의 폭음 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요인과 상담과정에서 개입한 가족치료자의 개입방법, 그리고 가족치료 후 내담자 가족 변화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와 같다.

첫째, 내담자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내담자의 폭음은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및 MRI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과 원가족과의 미분화된 정서문제로 인한 비효과적인 양육태도가 도출되었고 내담자의 폭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음주습관과 관련된 내담자의 특수한 가정환경 및 가정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은 부부 및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으로 구분되었다. 부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신혼 초기부터 싸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였다. 부모와 자녀사이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내담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부모 모두 매우 심한 잔소리를 사용하여 내담자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내담자는 부모님에게 속 이야기를 터놓지 못하고 혼자 삭히며 술을 마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내담자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에게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친정어머니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현재도 친정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 그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가족으로 부터 모녀관계 형성에 대한 학습이 없어, 현재 내담자(딸)와도 스트레스 주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딸과 아들을 심하게 차별하여 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담자는 폭음과 관련해 특수한 가족환경과 가정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내담자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어머니와 밀착관계가 형성되었다.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딸에게 풀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녀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혼자 방치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혼자 삭이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더불어 내담자의 가족은 술과 매우 친숙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에게 술은 대화의 윤희유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외가와 친가 모두 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낮은 가족 지지와 과도한 음주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D. R. Foxcroft & G. Lowe, 1991; M. Scheridan & R. Green, 1993).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알코올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과 가족환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선행연구(K. L. Jang, P. A. Vernon & W. J. Livesely, 2000)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R. Rotunda, D. Scherer, & P. Imm, 1995).

둘째, 가족치료 개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족치료의 개입 이후 내담자 가족은 각 구성원들의 인식, 의사소통방식,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원가족과 아내의 원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더불어 아버지는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방식과 행동변화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의 무뚝뚝한 말투 대신 내담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부부사이에서도 농담이 많이 늘어났고, 가족구성원들과 대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휴무일에는 아내를 도왔으며, 외식과 같은 가족모임을 많이 갖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치료자의 도움으로 원가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내담자의 자율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변화가 생겼다. 또한 어머니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게 되었고, 짜증을 내는 의사소통방식이 줄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구성원들은 어머니에게서 친절한 행동변화를 느꼈다. 내담자의 경우, 부모의 원가족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입장에 대한 배려 및 이해심이 생겼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변화되었다. 또한 내담자는 부모님과 충돌하였을 때 먼저 사과하였고, 혼자 삭이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더불어 내담자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머니를 대변하는 변화까지 생겼다. 특히, 내담자는 스스로 방 정리정돈을 하며 가사를 돕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내담자는 술을 마시는 횟수와 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폭음이 해결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폭음과 같은 음주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방법의 효과성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 J. O'Farrell & W. Fals-Stewart, 2003; R. J. Rotunda & T. J. O'Farrell, 1997). 특히, 본 연구결과는 폭음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모델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입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폭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족치료의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치료의 활용은 개인의 폭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족복지의 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먼

저 4인 가족 중 남동생이 개인적 이유로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여 4인 가족과 오누이 관계, 부자, 모자 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임으로 폭음문제를 가진 모든 사례에 대한 가족 치료적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자료가 실제 가족치료 임상 현장에 근거한 자료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사회복지 가족치료 임상 현장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가족치료의 개입이 폭음문제에 효과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aron, C. G. (2005). *Differentia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n application of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Ohio, USA.
- Ackard, D. M., Neumak-Sztainer, D., Story, M., & Perry, C. (2006). Parent - child connectedness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health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1), 59 - 66.
- Anderson, A. R., & Henry, C. S. (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behavi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dolescence*, 29(114), 405 - 420.
- Ary, V. D., Tildesley, E., Hops, H., & Andrews, J. (1993). The influence of parent, sibling, and peer modeling and attitudes on adolescent use of alcohol.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8(9), 853-880.
- Barnes, G. M., Hoffman, J. H., Welte, J. W., Farrell, M. P., & Dintcheff, B. A. (2006).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on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4), 1084-1104.
- Barnes, G. M., Reifman, A. S., Farrell, M. P., & Dintcheff, B. A.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175-186.
- Bartle-Haring, S., & Lal, A. (2010). Using Bowen theory to examine progress in couple therapy. *The Family Journal*, 18(2), 106-111.
- Beattie, M. C., & Longabaugh, R. (1997). Interpersonal factors and post-treatment drink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ddictions*, 92(11), 1507-1521.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aronson.
- Brown, S. A., Goldman, M., Inn, A., & Anderson, L.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by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 Copeland, J., & Hall, W. (1992). A comparison of predictors of treatment dropouts of women seeking drug and alcohol treatment of women specialist women's and two mixed sex treatment service. *British Journal of Addition*, 87(6), 883-890.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ielman, T. E. (1994). School-based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misuse: Methodological issues and adva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2), 271-293.
- Duttona, E. C., Adams, T., Bujarski, S., Badour, L. C., & Feldner, T. M. (201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lcohol dependence: Individual and combined associations with social network problem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1), 67-74.
- Edwards, M., & Steinglass, P. (1995). Family therapy treatment outcomes for alcoholis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4), 475-509.
- Foxcroft, D. R., & Lowe, G. (1991). Adolescent drinking behaviour and family socialization fact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14(3), 255-273.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13). *Family therapy: An overview*. Belmont, CA: Brooks/Cole, Cengage Learning .
- Gordon, A. J., & Zrull, M. (1991). Social networks and recovery: one year after inpatient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8(3), 143-152.
- Han, S. Y., Lee, M. K., & Shin, H. C.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7(4), 1009-1019.
- Jang, K. L., Vernon, P. A., & Livesley, W. J. (2000).

- Personality disorder traits, family environment, and alcohol misuse: A multivariate behavioural genetic analysis. *Addiction*, 95(6), 873-888.
- Jeon, K. S., & Lee, H. Y. (2010). Associated factors of binge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men and women.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1), 91-103.
- Jeong, W. C. (2006).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347-372.
- Jessor, R., Turbin, M. S., & Costa, F. M. (1998).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health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788-800.
- Jung, S. K. (2007).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7(12), 176-198.
- KCDH. (2013). *Korea Health Statistics 2013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trieved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s/index.do>.
- Keller, M.(Ed). (1974). *Trends in treatment of alcoholism*. In Second special report to the U.S Congress on alcohol and health,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Washington, DC.
- Kelly, A. B., Toumiourou, J. W., O'Flaherty, M., Patton, G. C. , Homel, R, Connor, J. P., & Williams J. (2011).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early alcohol use: Evidence for gender-specific risk process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2(3), 399-407.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orton, New York.
- Kim, H. J. (2012).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lcohol and crimes: Focus on the admissibility and tolerant recognition on the alcohol-related crimes.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25(2), 1-30.
- Kim, H. R., Choi, Y. J, & Choi, J. K. (200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problem drinker and their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4(2), 115-118.
- Kim, K. K. (1996). A public health approach to drinking patterns and alcohol-related problem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2(1), 162-192.
- Kim, Y. T. (2002). *Family Therapy*. Hakjisa, Seoul.
- Kushner, G. M., Sher, J. K., & Erickson, D. J. (1999). P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DSM-III anxiety disorders and alcohol 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5), 723-732.
- Laghi, F., Baiocco, R., Lonigro, A., Capacchione, G., & Baumgartner, E. (2012). Family functioning and binge drinking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8), 1132 - 1141.
- Lee, J. S, & Kim S, J. (2000). The drinking experience of women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4), 409-427.
- Lewis, B. A., & O'neil, K. H. (2000). Alcohol expectancies, lining and social deficits relating to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ur*, 25(2). 295-299.
- Lim, S. Y., Cho, H. S., & Lee, Y. H. (2005). A case study about female alcoholic's alcohol addictive proc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869-886.
- Lipton, R. I. (1994). The effects of moderate alcohol u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12), 1913-1917.
- Mathijssen, J. J. P., Janssen, M. M., van Bon-Martens, M. J. H., van Oers, H. A. M., de Boer E, & Garretsen, H. F. L. (2014). Alcohol segment-specific associ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dolescent alcohol use. *BMC Public Health*, 14(872), 1-8.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Moore, G. F., Rothwell, H., & Segrott, J. (2010).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ur and young people's consumption of alcohol.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5(6), 1-4.
- Mulia, M., Schmidt, L., Bond, J., Jacobs, L., & Korchal, R. (2008).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 drinking among women in poverty. *Addiction*, 103(8), 1283 - 1293.
- Noller, P., & Callan, V. (1990).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4), 349 - 361.

- O'Farrell, T. J., & Fals-Stewart, W. (2003). Alcohol abus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1), 121-146. 1
- O'Farrell, T. J., & Clements, K. (2012). Review of outcome research on marital and family therapy in treatment for alcoholis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1), 121-146.
- Park, H. R. & Lee, J. J. (2011). When woman drink: What to drink in what context i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3), 243-263.
- Park, T. Y. (2001). *Family therapy theories and practices*. Hakjisa, Seoul.
- Park, T. Y. (2009). Family therapy for a drug-using son: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7(1), 57-95.
- Park, T. Y., & Park, J. Y. (2011). A case study on the family therapy for couple conflict due to alcoholic proble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3, 95-129.
- Park, T. Y., & Shin, W. J. (2011). Family therapy for a family with an adult child with alcohol problem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2), 63-92.
- Park, T. Y., & Yu, J. H. (2012). A case study on family therapy for parents with a daughter suffering from multiple tic disord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5), 47-63.
- Rotunda, R. J., & O'Farrell, T. J. (1997). Marital and family therapy of alcohol use disorders: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3), 246-252.
- Rotunda, R., Scherer, D., & Imm, P. (1995). Family systems and alcohol misuse: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ism on family functioning and effective family intervention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1), 95-104.
- Ryu, J. S., Kang, K. G., & Lee, J. H. (2011). Factors of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2(1), 29-42.
- Scheer, S. D., Borden, L. M., & Donnermeyer, J. F.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actor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in rural, suburban, and urban setting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105-115.
- Sheridan, M., & Green, R. (1993). Family dynam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7(1-2), 79-97.
- Shin, Y. J., & Kim, Y. S. (2009). The process of addiction among alcohol dependent females-focusing on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4), 683-170.
- Skaff, M. M. K., Finney, J. W., & Moos, R. H. (1999). Gender differences in problem drinking and depression: Different vulner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1), 25-54.
- Tak, J. K. (2000).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life events on drinking motiv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8(1), 347-372.
- Tucker, J. A., Vuchicich, R. E., & Pukish, M. M. (1995). Molar environmental contexts surrounding recovery from alcohol problems by treatment and untreated problem drinkers.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2), 195-204.
- Turnbull, J. E. (1994). Early background variables as predictor of adult alcohol problems i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9(6), 707-728.
- Watzlawick, P., Weakland, J. H.,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Norton.
- Weakland, J. H. (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and R. Price (Eds.), *Therapeutic Conversations* (pp. 136-145). New York: Norton.
- Wilsnack, S. C. (1982).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in Women*, In E. M. Pattison & E.
- Yang, N. M., & Song, Y. I. (2013). Qualitative research about experiences of heavy and frequent binge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5(1), 83-109.

Received: March 15, 2015

Revised: June 7, 2015

Accepted: June 9, 2015